

2022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023년 1분기 전망

I. 2022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II. 2023년 1분기 수출 전망

III. 수출기업 애로사항

작성

수석연구원 김윤지 (02-6252-3607)





<요 약>

I. 2022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4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9.9%, 전기 대비로는 8.5% 감소

- 2022년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767억 달러) 대비 9.9%, 전분기(1,740억 달러) 대비로는 8.5% 감소한 **1,592억 달러**
- 경기 둔화 영향으로 10월 이후 수출이 위축되면서 2020년 4분기부터 이어 오던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가 9분기만에 중단되며 감소 전환
- 품목별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이, 지역별로는 중국, 일본, 아세안 등이 감소
- 2022년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6,837억 달러로 2년 연속 최고 수출실적 경신

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1p 상승한 91 기록

-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채산성 평가는 하락했으나, 수출물량 평가 등은 전기보다 소폭 상승해 수출업황 상승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20				'21				'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업황 평가지수	70	69	98	97	104	99	94	101	93	94	90	91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80	77	97	96	97	96	95	100	90	94	92	91
수출단가 평가지수	100	97	101	100	111	116	118	116	125	119	115	105
생산원가 평가지수	106	103	106	109	127	133	132	133	144	135	129	117
수출물량 평가지수	68	68	100	100	108	103	98	107	97	97	89	91
자금사정 평가지수	83	83	97	97	101	97	96	99	93	94	93	96

- 수출채산성은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은 상승, 해운, 플랜트/해건 등은 하락
- 수출물량은 섬유류, 전기전자, 선박 등은 상승, 해운,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등은 하락

산업별·기업규모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금속	석유화학	자동차	섬유	플랜트/해건	신재생에너지	선박	문화콘텐츠	해운	대기업	중소기업
'22.3Q	89	89	89	79	95	91	95	94	98	95	104	96	89
'22.4Q	96	89	89	89	92	94	93	100	89	105	90	99	81



II. 2023년 1분기 수출 전망

1분기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 대비 0.1p 상승, 전기 대비 5.3p 하락

- '23년 1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33.5로 전년동기 대비로는 0.1p 상승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5.3p 하락
- 수출선행지수가 전년동기 대비로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고 있고, 전기 대비로는 2분기 연속 하락함에 따라 수출 경기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21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선행지수	113.3	118.2	126.5	131.9	133.4	135.6	139.1	138.8	133.5
전년동기대비 증감(p)	4.4	9.2	27.4	23.1	20.1	17.3	12.6	6.9	0.1
전기대비 증감(p)	4.6	4.9	8.3	5.4	1.5	2.1	3.5	△0.3	△5.3

원자재 · D램 가격 하락으로 수출물가 하락세, 신규 주문 감소 등 경기 위축 신호 증가

- **수출대상국 경기** : 미국, 유로존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성장률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 경기도 둔화세 지속
 -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2.7('22.1Q)→1.9(2Q)→1.7(3Q)→**1.8(4Q)**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전 분기 대비 1.6p 하락한 47.2을 기록하면서 기준선(50)을 하회해 경기 위축 가능성 심화
 -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60.6('21.4Q)→57.8('22.1Q)→52.6(2Q)→48.8(3Q)→**47.2(4Q)**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수출입 물량이 감소하고 원유·원자재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10분기만에 전분기 대비 하락 전환
- **가격 경쟁력** : 미국 기준금리 인상, 국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4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1.6% 상승**한 달러당 **1,359원**까지 치솟아 가격 경쟁력은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수준
 - 경기침체 우려, 미국 연준 긴축 완화 기대감 등으로 달러 강세는 점차 진정되고 있는 상황
 -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183('21.4Q)→1,205('22.1Q)→1,260(2Q)→1,338(3Q)→**1,359(4Q)**
 - ※ 원/달러환율(월 평균) : 1,307('22.7)→ 1,318(8)→ 1,392(9)→ **1,427(10)→ 1,364(11)→ 1,296(12)**



- **수출물가** : 유가 안정화가 지속되고, D램·낸드플래시 등 반도체 단가도 하락세를 유지함에 따라 수출물가 하락폭은 전 분기 대비 확대
※ 수출물가 (2015=100, 달러기준) : 110.6('21.4Q)→112.6('22.1Q)→117.1(2Q)→109.4(3Q)→**104.1(4Q)**
- **D램 가격**은 글로벌 경기 위축 및 고물가 영향으로 정보기기(IT) 수요가 둔화되면서 재고 비중이 늘어나 2023년 내내 하향세를 나타낼 전망
※ D램 가격 전망(\$, DDR4_8Gb 고정가격, Omdia) : 3.50('22.1Q)→**2.05('23.1Q)**→**2.00(2Q)**→**1.88(3Q)**→**1.76(4Q)**
- **유가**는 중국 수요 회복 기대감 등으로 소폭 상승할 수는 있겠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당분간 2022년 4분기와 비슷한 수준 유지 전망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83.5('22.1)→113.3(6)→**91.2(10)**→**86.3(11)**→**77.2(12)**→**79.2('23.1.19)**
- **주요 산업** : 원유·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석유화학·석유제품 수출은 전년에 비해 위축되고, 글로벌 경기 하향으로 IT정보기기 수요가 둔화돼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도 줄어드는 등 주요 품목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자동차**는 각국의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신규 수요는 일부 제한되겠으나, 차량용 반도체 공급 개선으로 지난해부터 누적되어 온 대기 수요 이연,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의 영향으로 수출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

2023년 1분기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10% 내외 감소 전망

- 수출선행지수의 전기 대비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주요국 경기 둔화로 인한 신규주문 감소, 수출물가 하락 등이 이어져 **2023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0% 내외 감소한 1,560억 달러** 수준 전망
※ 분기별 수출액 (억달러) : ('21.4Q) 1,767→('22.1Q) 1,734→(2Q) 1,771→(3Q) 1,740→(4Q) 1,592
※ 분기별 수출액 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21.4Q) 24.5→('22.1Q) 18.4→(2Q) 13.0→(3Q) 5.8→(4Q) △9.9
- 다만,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가 예상보다 떨어져 미국 연준의 공격적 긴축이 지속될 경우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수출 감소폭은 더 확대될 수 있음.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원화환율 불안정'(51.3%), '원재료 가격 상승'(38.5%) 순 응답

- 환율 변동성 확대로 '원화환율 불안정'(52.1%→51.3%) 응답이 전기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원재료 가격 상승'(46.9%→38.5%) 응답률도 여전히 두 번째로 높은 비중 차지
-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19.0%→22.4%),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13.1%→17.0%),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7.5%→14.6%) 응답률은 전기에 비해 증가



I. 2022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1. 수출실적 및 관련지표

4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9.9%, 전기 대비로는 8.5% 감소

- 2022년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767억 달러) 대비 9.9%, 전분기(1,740억 달러) 대비로는 8.5% 감소한 **1,592억 달러**
- 경기 둔화 영향으로 10월 이후 수출이 위축되면서 2020년 4분기부터 이어 오던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가 9분기만에 중단되며 감소 전환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영향으로 對중국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D램 반도체 가격 등 수출물가 하락 영향
- 품목별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이, 지역별로는 중국, 일본, 아세안 등이 감소
- 2022년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6,837억 달러로 2년 연속 최고 수출실적 경신

수출실적 관련지표 추이

(단위 : 억 달러,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액	1,464	1,567	1,645	1,767	1,734	1,771	1,740	1,592
증감률(%)	12.5	42.0	26.5	24.5	18.4	13.0	5.8	△9.9
수출물가지수	99.8	107.0	110.4	110.6	112.6	117.1	109.4	104.1
증감률(%)	8.7	22.3	22.0	18.1	12.8	9.5	△0.9	△5.9
수입물가지수	107.4	113.6	119.1	123.4	131.5	136.7	128.0	122.3
증감률(%)	7.9	24.8	26.1	26.3	22.4	20.3	7.5	△0.9
수출물량지수	116.4	118.5	119.9	126.6	124.2	121.1	124.9	117.5*
증감률(%)	5.0	19.4	4.9	4.5	6.7	2.2	4.1	△7.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주: 수출입물가지수(달러화 기준) 및 수출물량지수는 2015=100

* 4분기 수출물량지수는 10~11월 평균



수출단가 하락 및 수요 둔화 영향으로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감소폭 확대

- **반도체**(△25.8%)는 D램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용 IT기기 및 서버 수요 둔화로 수출 감소폭 확대
※ D램가격(\$, DDR4_8Gb, 고정가격) : 3.96(21.3Q)→3.75(4Q)→3.50('22.1Q)→3.40(2Q)→2.80(3Q)→**2.20(4Q)**
- **석유화학**(△25.3%)은 공급과잉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자급률 제고로 수출 감소세 심화
- **일반기계**(△2.9%)는 미국·EU 등의 건설·설비 관련 수출 호조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對중국 건설기계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감소세 전환
- **자동차**(29.3%)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완화되면서 대기 수요를 위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SUV·전기차 수출 호조로 6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두자릿수 증가율 기록
- **석유제품**(19.2%)은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동절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 유지
- **이차전지**(15.7%)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으로 미국내 전기차 생산에 한국산 이차전지 투입이 늘어나면서 6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상승세 유지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1. 1/4	2/4	3/4	4/4	'22. 1/4	2/4	3/4	4/4	'22 연간	10월	11월	12월
반도체	14.0	29.7	36.3	34.6	29.0	13.6	△3.9	△ 25.8	1.0	△17.4	△29.9	△29.1
석유화학	26.1	80.0	64.0	54.1	27.6	6.9	△9.7	△ 25.3	△ 1.5	△25.5	△26.6	△23.8
일반기계	△6.8	16.8	7.7	2.7	11.5	0.3	0.2	△ 2.9	2.1	△3.4	△1.7	△3.4
자동차	31.4	74.7	6.5	4.9	△0.4	6.8	31.2	29.3	16.4	28.4	31.0	28.3
석유제품	△17.0	110.3	71.6	113.7	91.1	90.9	78.3	19.2	65.3	9.3	26.1	22.7
선박류	28.2	11.8	△1.4	22.9	△45.3	△6.7	6.3	△ 22.5	△ 20.8	△8.9	△68.2	76.1
이차전지	15.5	33.2	12.3	4.1	11.6	8.1	25.5	15.7	15.2	16.7	0.5	29.7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미국·EU는 호조세 유지, 중국·아세안 등은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 감소

- **중국 수출**(△22.9%)은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경기 둔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단가 하락 및 수요 부진 영향으로 수출 감소폭 확대



- **미국(7.1%)**은 자동차 및 차부품 수출 호조 및 전기차 생산을 위한 이차전지 수출 증가 등이 이어지며 28개월 연속 수출 증가 지속
- **아세안(△12.4%)**은 경기 둔화 영향으로 IT기기 판매가 감소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요가 하락하고, 일반기계 수출도 부진해짐에 따라 수출 감소 전환
- **EU(5.3%)**는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난이 완화되면서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난방 연료 수요 증가로 석유제품 수출도 늘어 3개월 연속 수출 증가
- **CIS(△9.5%)**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자동차 및 차부품 수출이 부진하고, 중국산 제품의 한국산 일반기계 대체가 늘어나면서 수출 감소세 지속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1. 1/4	2/4	3/4	4/4	'22. 1/4	2/4	3/4	4/4	'22 연간	10월	11월	12월
중국	25.0	22.9	19.8	24.2	15.5	△1.0	△4.9	△ 22.9	△ 4.4	△15.7	△25.5	△27.0
미국	19.9	52.0	27.4	22.6	13.9	22.2	15.2	7.1	14.5	6.6	8.0	6.7
일본	△4.9	33.0	28.9	27.6	15.1	8.9	0.0	△ 13.8	1.9	△13.1	△17.8	△10.3
아세안	△4.8	47.4	26.4	28.2	38.4	26.1	15.4	△ 12.4	14.8	△5.6	△14.0	△16.8
EU(27)	30.9	56.4	32.3	18.5	5.9	10.2	7.2	5.3	7.1	10.4	0.1	5.6
베트남	6.3	43.2	13.6	12.2	30.7	16.2	△1.1	△ 10.1	7.5	1.1	△15.1	△15.1
중남미	4.5	84.1	45.0	17.3	26.5	11.7	△4.9	△ 16.4	3.0	△27.2	△19.2	△1.7
CIS	△13.8	39.2	31.3	27.4	5.2	△43.3	△19.5	△ 9.5	△ 17.7	0.2	4.6	△29.1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원유·원자재 가격 안정, 반도체 단가 하락으로 수출물가 하락 지속

- 수출물가(달러화 기준)는 원유·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원유정제처리제품 단가가 하락하고, 반도체 단가도 전년동기 대비 **29.5%** 하락하여 전년동기 대비 **5.9%**, 전기 대비 **4.8%** 하락
- 원유정제처리제품 수출 단가는 전년동기 대비로는 **22.5%** 높은 수준이나, 전기 대비로는 **7.7%** 하락했으며, 철강제품 수출 단가도 전년동기 대비 **19.2%** 하락하는 등 원자재 가격 영향이 큰 수출 품목들의 단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78.4('21.4Q)→ 95.6('22.1Q)→ 108.1(2Q)→ 96.9(3Q)→ **84.9(4Q)**
- 수입물가(달러화 기준)도 원유, 철광석 수입가격이 전기 대비 각각 **12.4%**, **10.1%** 하락한 영향으로 전기 대비 **4.4%** 하락, 전년 동기 대비로도 **0.9%** 하락 전환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가. 전체 수출업황

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1p 상승

- 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0p 하락, 전기 대비로는 1p 상승한 91
-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채산성 평가는 하락했으나, 수출물량 평가 등은 전기보다 소폭 상승해 수출업황 상승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생산원가(전기대비 12p↓)가 하락했지만, 수출단가(전기대비 10p↓)도 하락해, 종합적인 수출채산성은 전년동기 대비 9p, 전기 대비 1p 하락한 91
- (수출물량 평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16p 하락했으나 전기 대비 2p 상승한 91 기록
- (자금사정 평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3p 하락했으나 전기 대비 3p 상승한 96 기록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20				'21				'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업황평가지수	70	69	98	97	104	99	94	101	93	94	90	91
수출채산성평가지수	80	77	97	96	97	96	95	100	90	94	92	91
수출단가평가지수	100	97	101	100	111	116	118	116	125	119	115	105
생산원가평가지수	106	103	106	109	127	133	132	133	144	135	129	117
수출물량평가지수	68	68	100	100	108	103	98	107	97	97	89	91
자금사정평가지수	83	83	97	97	101	97	96	99	93	94	93	96

주: <부록>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참고

나. 규모별 · 산업별 · 수출 지역별 수출업황

기업규모별 : 대기업(96p→99p), 중소기업(89p→91p) 모두 전기 대비 상승

- 수출채산성은 대기업이 3p, 중소기업은 1p 하락했으나, 수출물량은 대기업 4p 하락, 중소기업 2p 상승



산업별 : 석유화학(79p→89p), 신재생에너지(94p→100p) 업황 개선, 해운(104p→90p) 등은 하락

- 수출채산성은 전기전자(90p→95p), 자동차(89p→94p), 석유화학(80p→82p) 등은 상승, 해운(110p→95p), 플랜트/해건(98p→89p), 문화콘텐츠(110p→95p) 등은 하락
- 수출물량은 섬유류(83→96), 전기전자(83p→92p), 선박(91p→96p) 등은 상승, 해운(111p→97p), 신재생에너지(119p→111p), 자동차(102p→95p) 등은 하락

수출지역별 : 일본(76p→89p), 중동(77p→88p), 중국(87p→90p)은 업황 개선, 중남미(108p→98p) 등은 하락

- 수출채산성은 중남미(85p→98p), 일본(86p→93p)은 상승, 동남아(93p→85p) 하락
- 수출물량은 중국(810p→90p), 일본(85p→93p)은 상승, 유로존(94p→86p) 하락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수출업황 지수		수출채산성 지수		수출물량 지수	
		'22. 3/4	4/4	'22. 3/4	4/4	'22. 3/4	4/4
전 체		90	91	92	91	89	91
규모	대 기 업	96	99	91	88	96	92
	중 소 기 업	89	91	92	91	88	90
산업	전 기 전 자	89	96	90	95	83	92
	기 계 류	89	89	90	89	89	89
	철 강 / 비 철 금 속	89	89	92	93	85	88
	석 유 화 학	79	89	80	82	79	82
	자 동 차	95	92	99	96	102	95
	섬 유 류	91	94	89	94	83	96
	플랜트/해외건설	95	93	98	89	88	87
	신 재 생 에 너 지	94	100	100	100	119	111
	선 박	98	89	93	93	91	96
	문 화 콘 텐 츠	95	105	110	95	100	95
	해 운	104	90	104	87	111	97
수출 지역	북 미	95	94	97	98	93	93
	중 국	87	90	85	85	81	90
	일 본	76	89	86	93	85	93
	유 로 존	93	91	93	89	94	86
	동 남 아	90	89	93	85	86	86
	중 남 미	108	98	85	98	108	108
	중 동	77	88	85	81	92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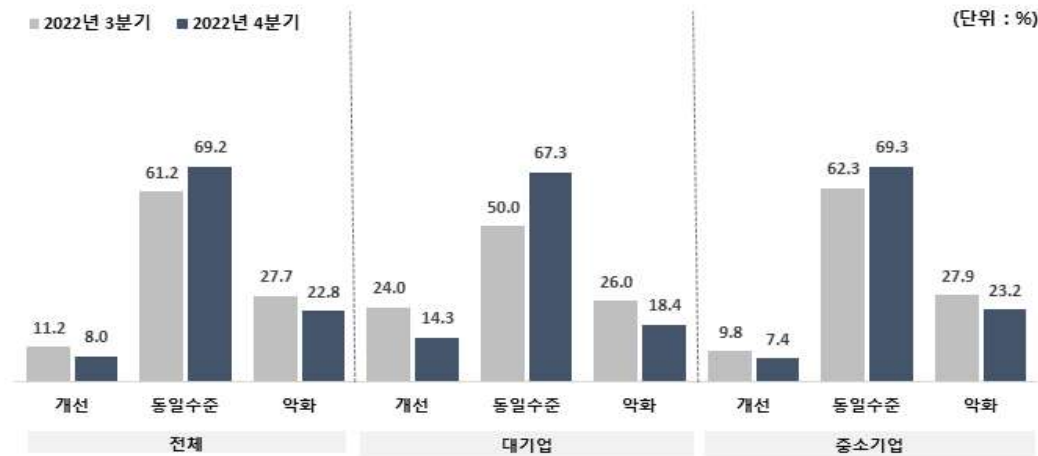
3. 수출기업 업황 평가 분석

가. 수출업황 평가 분포 현황 (응답 기업 548개사)

수출업황 '개선' 8.0%, '동일 수준' 69.2%, '악화' 22.8%로 악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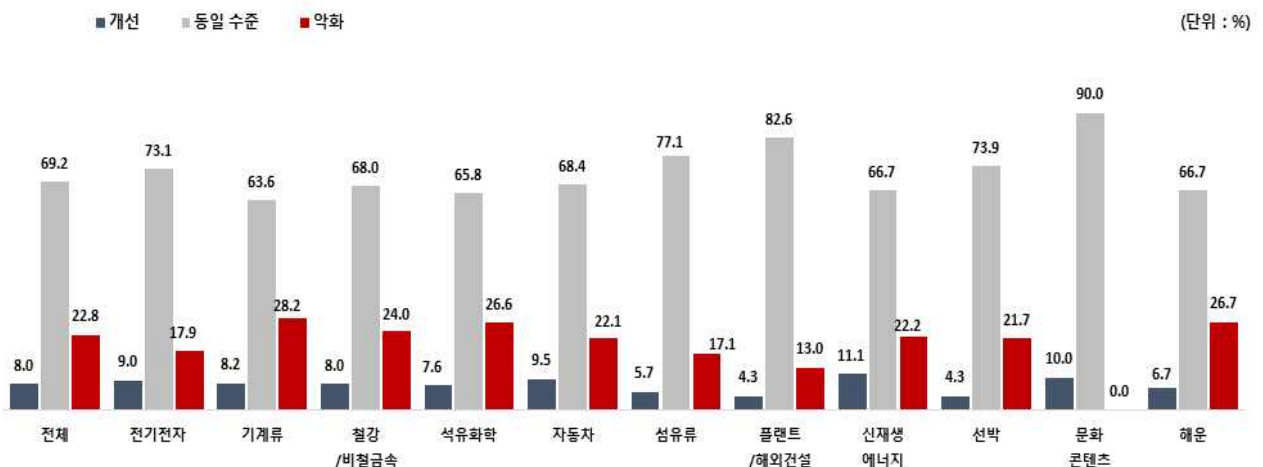
- 전기 대비 '동일 수준' 응답이 소폭 증가한 반면 '악화' 및 '개선' 응답은 각각 4.9%p, 3.1%p 감소
- (규모별) 전기 대비 '악화' 응답은 대기업 7.6%p, 중소기업 4.7%p 감소, '개선' 응답은 대기업 9.7%p, 중소기업 2.2%p 감소

4분기 수출업황 평가 : 기업규모별



- (산업별) '개선' 응답은 문화콘텐츠(0.0%→10.0%), 석유화학(4.1%→7.6%), 전기전자(8.1%→9.0%) 등에서 증가, '악화' 응답은 해운(7.1%→26.7%)에서만 증가

4분기 수출업황 평가 : 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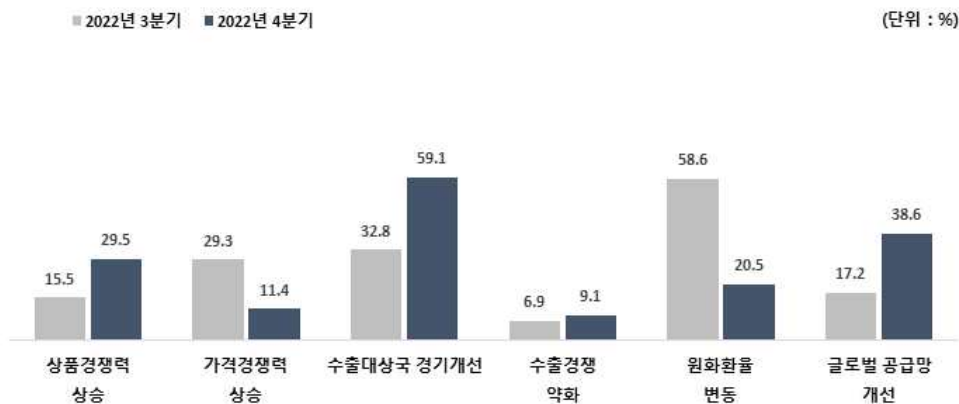


나. 수출업황 '개선' 원인 (전체 설문 기업 548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44개사, 복수응답)

'수출대상국 경기개선'(59.1%), '글로벌 공급망 개선'(38.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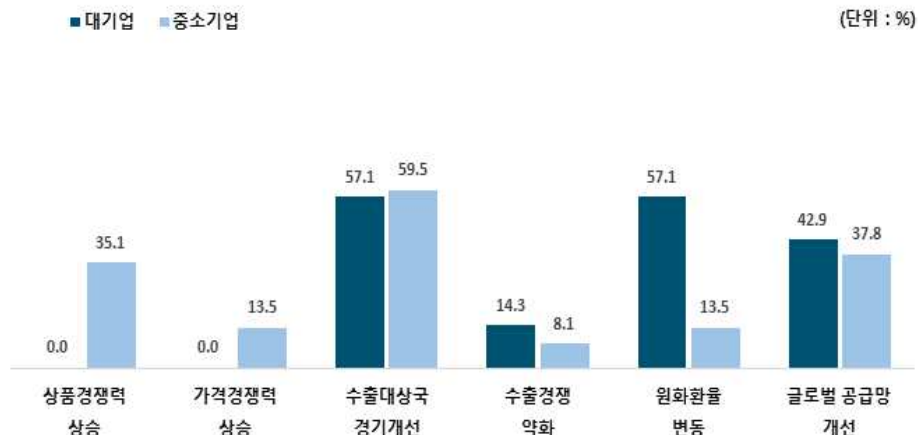
- 10월 최고점을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이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원화환율 변동'(58.6%→20.5%) 응답률은 감소하고 '수출대상국 경기개선'(32.8%→59.1%)이 최대 비중 차지, '글로벌 공급망 개선'(17.2%→38.6%) 응답도 증가

4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전체



- (규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을 각각 57.1%, 59.5%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대기업은 '원화환율 변동'(57.1%)도 함께 가장 많이 응답, 중소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개선'(37.8%)을 그 다음 비중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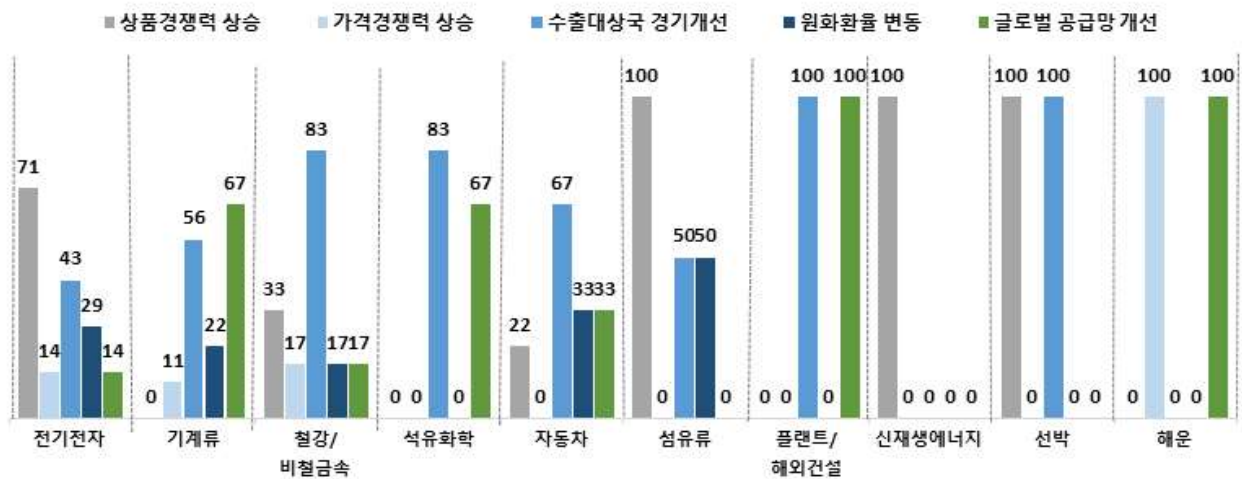
4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기업 규모별





- (산업별) 플랜트/해외건설(100%), 선박(100%), 철강/비철금속(83%), 선박(83%) 등이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을 업황 개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
- '글로벌 공급망 개선'은 플랜트/해외건설(100%), 해운(100%), 기계류(67%), 석유화학(67%) 등에서 응답 비중이 높음.
- '원화환율 변동'은 섬유류(50%), 자동차(33%), 전기전자(29%) 등에서 높게 응답
- '상품 경쟁력 상승'은 섬유류(100%), 신재생에너지(100%), 선박(100%), 전기전자(71%) 등에서 높게 응답

4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산업별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개선' 원인

(단위 : %)

구분		상품경쟁력 상	비용구조 개선 가격경쟁력 상	수출대상국 경기개선	수출경쟁 화	원화환율 변동	글로벌 공급망 개선
전 체		29.5	11.4	59.1	9.1	20.5	38.6
규모	대 기 업	0.0	0.0	57.1	14.3	57.1	42.9
	중 소 기 업	35.1	13.5	59.5	8.1	13.5	37.8
산업	전 기 전 자	71.4	14.3	42.9	28.6	28.6	14.3
	기 계 류	0.0	11.1	55.6	0.0	22.2	66.7
	철 강 / 비 철	33.3	16.7	83.3	16.7	16.7	16.7
	석 유 화 학	0.0	0.0	83.3	0.0	0.0	66.7
	자 동 차	22.2	0.0	66.7	11.1	33.3	33.3
	섬 유 류	100.0	0.0	50.0	0.0	50.0	0.0
	플랜트/해건	0.0	0.0	100.0	0.0	0.0	100.0
	신재생에너지	100.0	0.0	0.0	0.0	0.0	0.0
	선 박	100.0	0.0	100.0	0.0	0.0	0.0
	해 운	0.0	100.0	0.0	0.0	0.0	100.0
수출 지역	북 미	38.5	7.7	61.5	0.0	23.1	38.5
	중 국	14.3	0.0	57.1	14.3	42.9	14.3
	일 본	25.0	0.0	100.0	25.0	0.0	0.0
	유 로 존	57.1	28.6	14.3	14.3	28.6	42.9
	동 남 아	14.3	28.6	57.1	14.3	0.0	71.4
	중 남 미	0.0	0.0	75.0	0.0	25.0	75.0

주 : 전체 설문 548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44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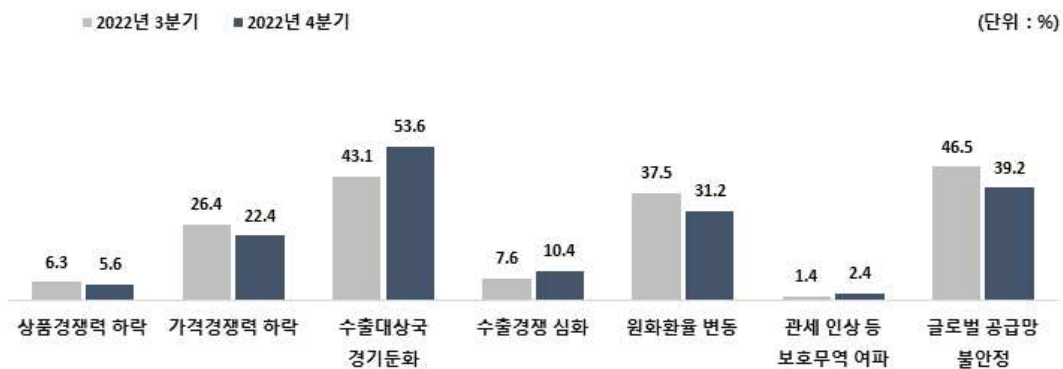


다. 수출업황 '악화' 원인 (전체 설문 548개사 중 '악화' 응답 기업 125개사, 복수응답)

'수출대상국 경기둔화'(53.6%),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39.2%)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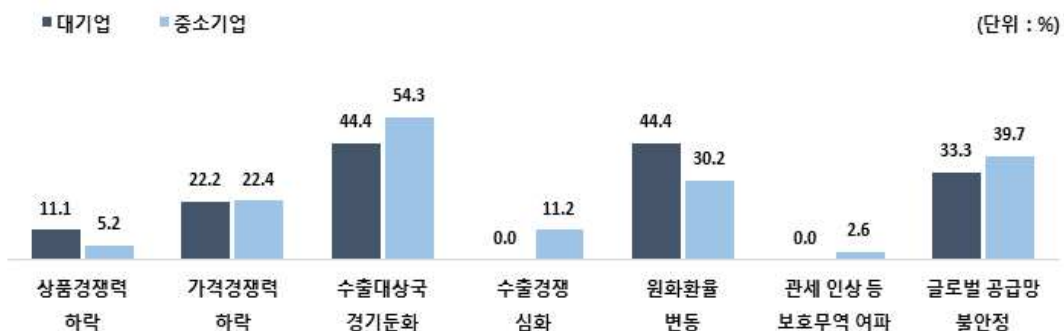
- '수출대상국 경기둔화(43.1%→53.6%)'이 전기에 비해 **10.5%p** 상승하며 수출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46.5%→39.2%)' 순으로 응답

4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전체



- (산업별) '수출대상국 경기둔화'는 해운(75.0%), 섬유류(66.7%), 석유화학(57.1%), 철강/비철금속(55.6%) 산업에서 많이 응답
-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신재생에너지(100.0%), 자동차(71.4%), 플랜트/해외건설(66.7%)에서 많이 응답
- (수출지역별) '수출대상국 경기둔화'는 주요 수출대상국이 북미(62.1%), 중국(60.0%), 일본(64.3%)인 기업에서 많이 응답
- (규모별)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은 '수출대상국 경기둔화'(44.4%)와 '원화 환율 변동'(44.4%)을, 중소기업은 '수출대상국 경기둔화'(54.3%)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39.7%)을 가장 많이 선택

4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기업규모별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악화' 원인

(단위 : %)

구분		상 경 하	품 쟁 력 락	가 경 하	격 쟁 력 락	수 대 상 경 기 둔 화	수 경 심	출 쟁 화	원 환 변	화 울 동	관 세 인 상 등 보 호 무 역	금 로 공 급 불 안 정
전 체		5.6		22.4		53.6	10.4		31.2		2.4	39.2
규 모	대 기 업	11.1		22.2		44.4	0.0		44.4		0.0	33.3
	중 소 기 업	5.2		22.4		54.3	11.2		30.2		2.6	39.7
산 업	전 기 전 자	0.0		21.4		50.0	7.1		28.6		7.1	71.4
	기 계 류	3.2		22.6		51.6	16.1		29.0		0.0	32.3
	철 강 / 비 철	5.6		38.9		55.6	5.6		38.9		0.0	38.9
	석 유 화 학	14.3		28.6		57.1	9.5		42.9		4.8	28.6
	자 동 차	4.8		14.3		47.6	4.8		38.1		9.5	38.1
	섬 유 류	16.7		0.0		66.7	16.7		33.3		0.0	33.3
	플 란트/해 건	0.0		0.0		33.3	0.0		0.0		0.0	66.7
	신 재생 에 너 지	0.0		0.0		50.0	0.0		0.0		0.0	100.0
	선 박	0.0		20.0		0.0	20.0		20.0		0.0	40.0
	해 운	0.0		25.0		75.0	25.0		25.0		0.0	25.0
수출 지역	북 미	6.9		17.2		62.1	3.4		27.6		0.0	37.9
	중 국	4.0		20.0		60.0	16.0		40.0		4.0	36.0
	일 본	0.0		21.4		64.3	21.4		21.4		0.0	35.7
	유 로 존	11.1		11.1		33.3	11.1		44.4		5.6	50.0
	동 남 아	6.9		34.5		44.8	6.9		24.1		3.4	41.4
	중 남 미	0.0		25.0		50.0	0.0		25.0		0.0	50.0
	중 동	0.0		50.0		50.0	25.0		25.0		0.0	0.0

주 : 전체 설문 548개사 중 '악화' 응답 기업 125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II. 2023년 1분기 수출 전망

1. 수출선행지수 추이

1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0.1p 상승, 전기 대비 5.3p 하락

- '23년 1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33.5로 전년동기 대비로는 0.1p 상승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5.3p 하락
- 수출선행지수가 전년동기 대비로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고 있고, 전기 대비로는 2분기 연속 하락함에 따라 수출 경기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수출선행지수 구성 지표인 수출대상국 경기, 제조업 신규주문 등은 전 분기에 이어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고, 수출용 수입액도 물량 및 수출입 물가 하락으로 전기 대비 감소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21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선행지수	113.3	118.2	126.5	131.9	133.4	135.6	139.1	138.8	133.5
전년동기대비 증감(p)	4.4	9.2	27.4	23.1	20.1	17.3	12.6	6.9	0.1
전기대비 증감(p)	4.6	4.9	8.3	5.4	1.5	2.1	3.5	△0.3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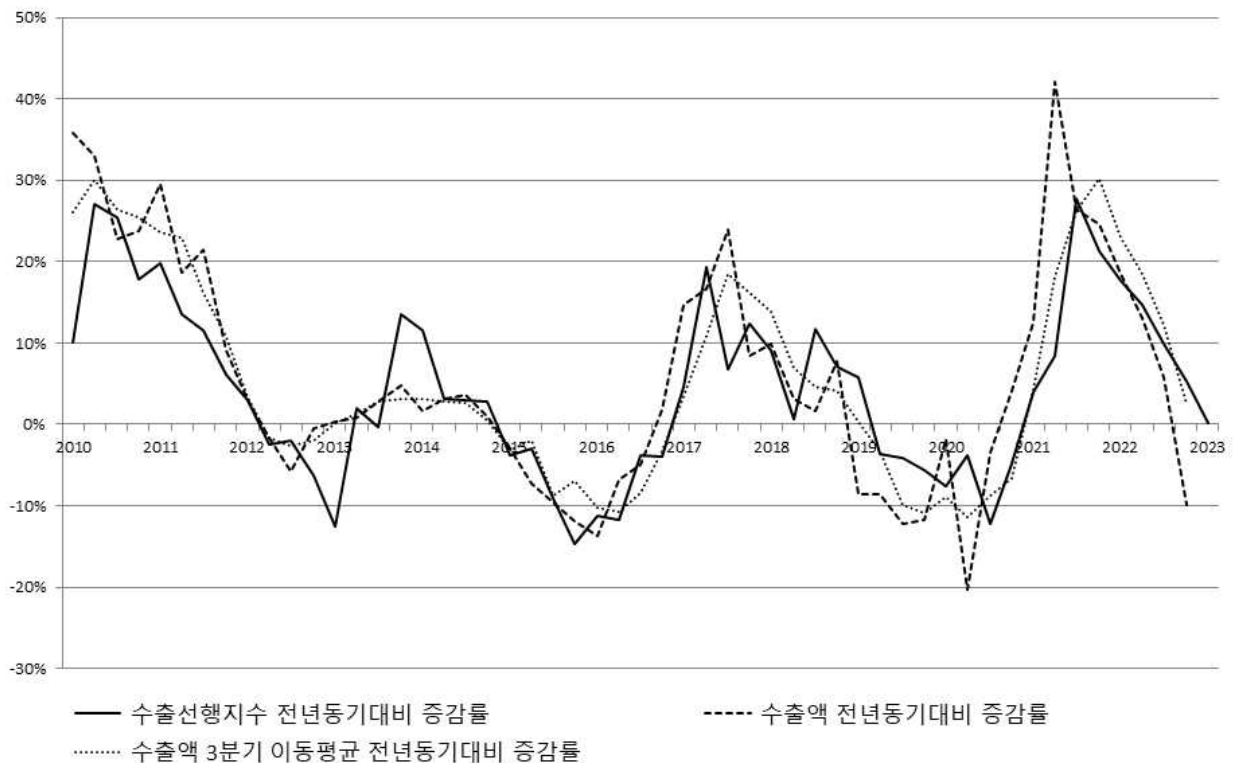
주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지수 추이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





원자재 · D램 가격 하락으로 수출물가 하락세, 신규 주문 감소 등 경기 위축 신호 증가

- 수출대상국 경기 : 미국, 유로존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성장률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 경기도 둔화세 지속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2.7('22.1Q)→1.9(2Q)→1.7(3Q)→**1.8(4Q)**

- WTO 상품무역지수 : 수출 신규 주문, 항공 화물량 등이 감소해 전분기(100.0)를 하회한 96.2을 기록, 무역 위축 시사

※ **Goods Trade Barometer***(WTO) : 99.5('21.4Q)→98.7('22.1Q)→99.0(2Q)→100.0(3Q)→**96.2(4Q)**

* 2022년 6월=100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무역 확장세, 하회하면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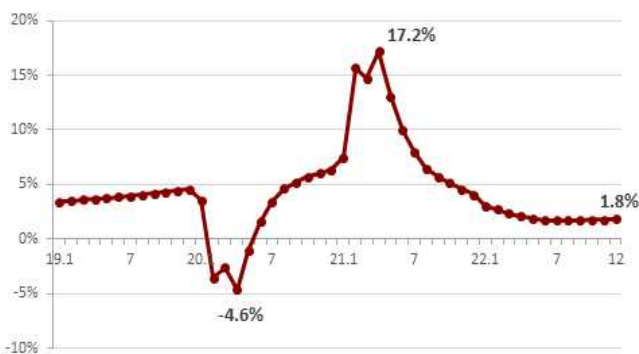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전 분기 대비 1.6p 하락한 47.2을 기록하면서 기준선(50)을 하회해 경기 위축 가능성 심화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에서 매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 설문을 실시해 발표하는 지수로, 우리나라 수출액에 대해 3~6개월 선행성을 나타냄.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60.6('21.4Q)→57.8('22.1Q)→52.6(2Q)→48.8(3Q)→**47.2(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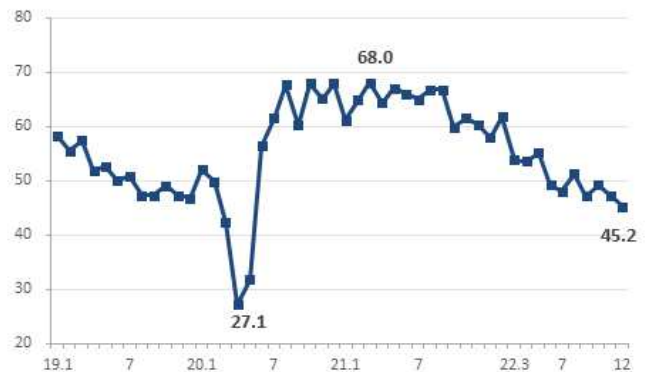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월) : 48.0('22.7)→51.3(8)→47.1(9)→**49.2(10)→47.2(11)→45.2(12)**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증감률(%)



자료 : OECD 선행지수 활용 자체 산출 (전년동월대비)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자료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수출입 물량이 감소하고 원유·원자재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10분기만에 전분기 대비 하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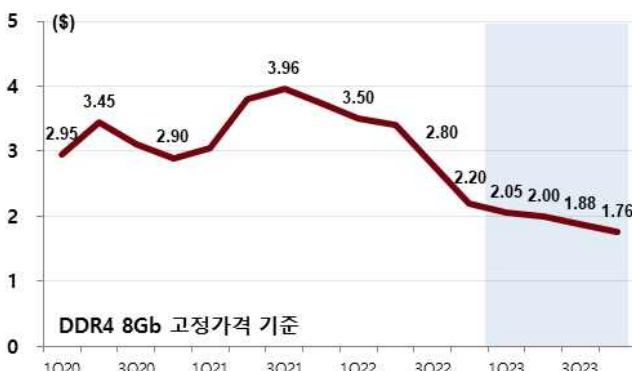
※ 수출용 수입액지수(분기, 2010=100): 126.9('21.4Q)→137.3('22.1Q)→150.7(2Q)→156.2(3Q)→**132.5(4Q)**

※ 수출용 수입액지수 증감률(% , 전년동기 대비): 65.5('21.4Q)→51.5('22.1Q)→45.0(2Q)→33.4(3Q)→**4.5(4Q)**



- **가격 경쟁력** : 미국 기준금리 인상, 국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4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1.6% 상승**한 달러당 **1,359원**까지 치솟아 가격 경쟁력은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수준
 - 경기침체 우려, 미국 연준 긴축 완화 기대감 등으로 달러 강세는 점차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나, 미국 기준금리가 '23년 중 5%대를 유지하고 연내 금리인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원화 가치 회복은 하반기 이후 가시화될 전망
 -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183('21.4Q)→1,205('22.1Q)→1,260(2Q)→1,338(3Q)→**1,359(4Q)**
 - ※ 원/달러환율(월 평균) : 1,307('22.7)→ 1,318(8)→ 1,392(9)→ **1,427(10)**→ **1,364(11)**→ **1,296(12)**
- **수출물가** : 유가 안정화가 지속되고, D램·낸드플래시 등 반도체 단가도 하락세를 유지함에 따라 수출물가 하락폭은 전 분기 대비 확대
 - ※ 수출물가 (2015=100, 달러기준) : 110.6('21.4Q)→112.6('22.1Q)→117.1(2Q)→109.4(3Q)→**104.1(4Q)**
 - ※ 수출물가 상승률(% 전년동기 대비, 달러기준) : 18.1('21.4Q)→12.8('22.1Q)→9.5(2Q)→△0.9(3Q)→△**5.9(4Q)**
- **D램 가격**은 글로벌 경기 위축 및 고물가 영향으로 정보기기(IT) 수요가 둔화되면서 재고 비중이 늘어나 2023년 내내 하향세를 나타낼 전망
 - ※ D램 가격 전망(\$, DDR4_8Gb 고정가격, Omdia) : 3.50('22.1Q)→**2.05('23.1Q)**→**2.00(2Q)**→**1.88(3Q)**→**1.76(4Q)**
- **유가**는 중국 수요 회복 기대감 등으로 소폭 상승할 수는 있겠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당 분간 2022년 4분기와 비슷한 수준 유지 전망
 -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83.5('22.1)→113.3(6)→**91.2(10)**→**86.3(11)**→**77.2(12)**→**79.2('23.1.19)**

D램 가격 전망



자료 : Omdia (2022.12월)

유가 추이



자료 : Petronet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가격)

- **주요 산업** : 원유·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석유화학·석유제품 수출은 전년에 비해 위축되고, 글로벌 경기 하향으로 IT정보기기 수요가 둔화돼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도 줄어드는 등 주요 품목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반도체는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영향으로 당분간 전년동기 대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 자동차는 각국의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신규 수요는 일부 제한되겠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 개선으로 지난해부터 누적되어 온 대기 수요 이연,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의 영향으로 수출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

2023년 1분기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10% 내외 감소 전망

- 수출선행지수의 전기 대비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주요국 경기 둔화로 인한 신규주문 감소, 수출물가 하락 등이 이어져 2023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0% 내외 감소한 1,560억 달러 수준 전망
 - ※ 분기별 수출액 (억달러) : ('21.4Q) 1,767→('22.1Q) 1,734→(2Q) 1,771→(3Q) 1,740→(4Q) 1,592
 - ※ 분기별 수출액 증감율 (%) 전년동기대비) : ('21.4Q) 24.5→('22.1Q) 18.4→(2Q) 13.0→(3Q) 5.8→(4Q) △9.9
- 다만,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가 예상보다 떨어져 미국 연준의 공격적 긴축이 지속될 경우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수출 감소폭은 더 확대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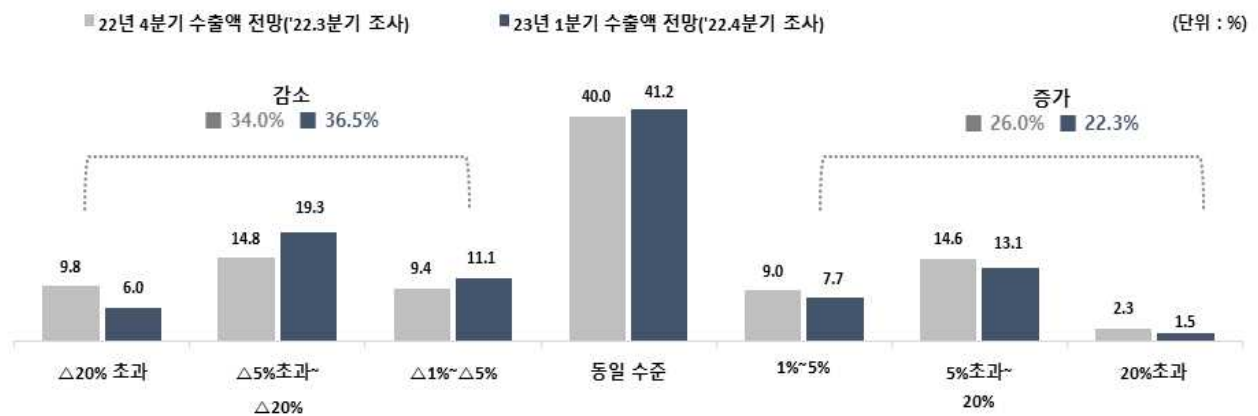


2. 수출기업의 '23년 1분기 수출액 전망 (응답 기업 548개사)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 '감소' 전망 36.5%, '증가' 전망 22.3%로 '감소'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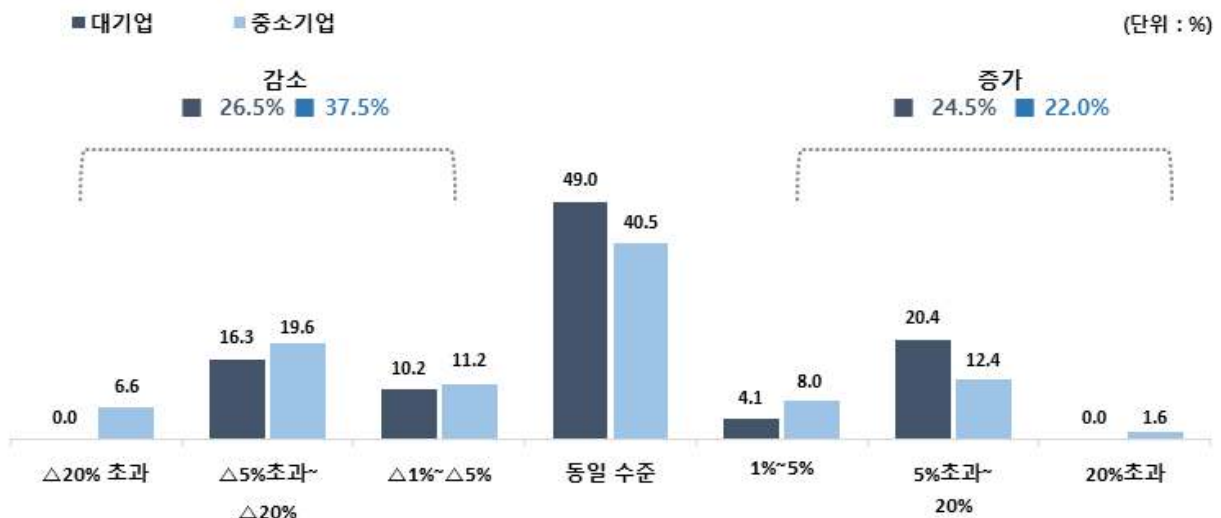
- 전년동기 대비 '증가'(26.0%→22.3%)는 전기 보다 3.7%p 줄어든 반면, '감소'(34.0%→36.5%)는 전기 대비 2.5%p 증가해 2023년 1분기 수출은 감소 전망이 우세
- '동일 수준' 전망 응답률(40.0%→41.2%)은 전기와 유사한 수준

'23년 1분기 수출액 전망 (전년동기 대비)



- (규모별) 대기업(36.0%→26.5%)은 '감소' 전망이 전기에 비해 9.5%p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33.8%→37.5%)은 3.7%p 증가해 중소기업의 수출 전망이 대기업보다 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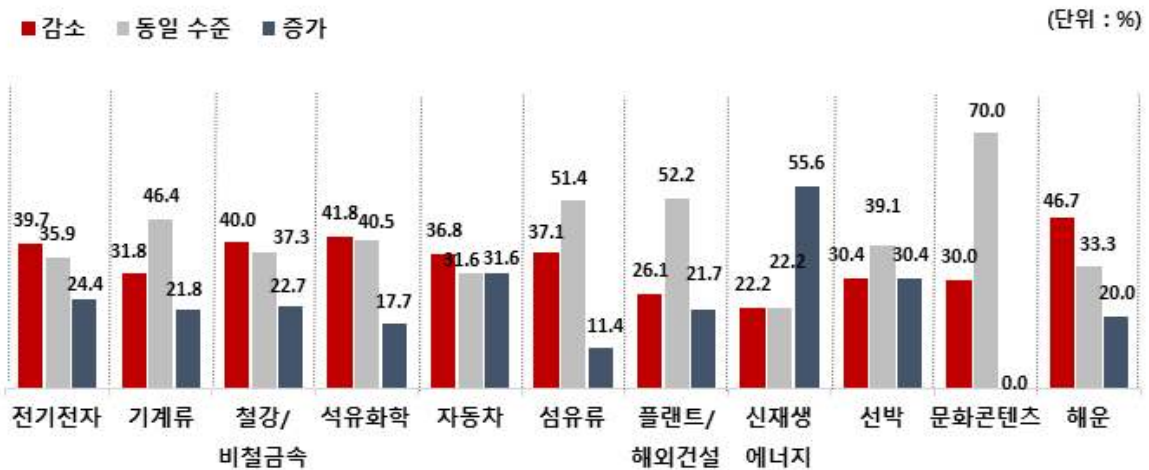
'23년 1분기 수출액 전망 : 기업규모별 (전년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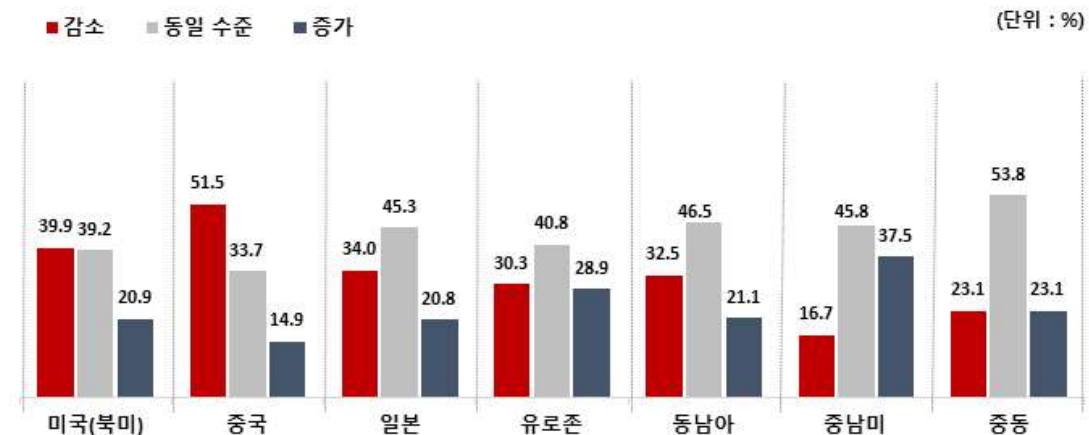
- (산업별) 해운(46.7%), 석유화학(41.8%), 철강/비철금속(40.0%), 전기전자(39.7%) 등은 타산업 대비 '감소' 전망이 높은 편
- 전년동기 대비 '증가' 전망 응답 비율이 높은 산업은 신재생에너지(55.6%), 자동차(31.6%), 선박(30.4%)

'23년 1분기 수출액 전망 : 산업별 (전년동기 대비)



- (수출지역별) 전년동기 대비 '감소'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중국(51.5%), 북미(39.9%), 일본(34.0%) 등
- 반면 '증가' 전망이 높은 지역은 중남미(37.5%), 유로존(28.9%)

'23년 1분기 수출액 전망 : 수출 지역별 (전년동기 대비)





'23년 1분기 수출액 증감률 전망 (전년동기 대비)

(단위 : %)

구분		△20 % 초과	△5%초과 ~ △20%	△1% ~ △5%	동일 수준	1% ~ 5%	5% 초과 ~ 20%	20% 초과
전 체		6.0	19.3	11.1	41.2	7.7	13.1	1.5
규 모	대 기 업	0.0	16.3	10.2	49.0	4.1	20.4	0.0
	중 소 기 업	6.6	19.6	11.2	40.5	8.0	12.4	1.6
산업	전 기 전 자	3.8	19.2	16.7	35.9	10.3	14.1	0.0
	기 계 류	10.0	14.5	7.3	46.4	11.8	9.1	0.9
	철 강/비철금속	9.3	26.7	4.0	37.3	8.0	13.3	1.3
	석 유 화 학	2.5	21.5	17.7	40.5	2.5	12.7	2.5
	자 동 차	5.3	15.8	15.8	31.6	12.6	17.9	1.1
	섬 유 류	0.0	28.6	8.6	51.4	2.9	8.6	0.0
	플 란 트 / 해 건	4.3	13.0	8.7	52.2	0.0	17.4	4.3
	신 재 생 에 너 지	11.1	0.0	11.1	22.2	11.1	33.3	11.1
	선 박	0.0	26.1	4.3	39.1	8.7	17.4	4.3
	문 화 콘 텐 츠	0.0	20.0	10.0	70.0	0.0	0.0	0.0
	해 운	6.7	26.7	13.3	33.3	6.7	13.3	0.0
수출 지역	북 미	2.7	23.0	14.2	39.2	6.8	13.5	0.7
	중 국	6.9	26.7	17.8	33.7	5.0	6.9	3.0
	일 본	5.7	18.9	9.4	45.3	9.4	11.3	0.0
	유 로 존	5.3	17.1	7.9	40.8	14.5	13.2	1.3
	동 남 아	10.5	15.8	6.1	46.5	5.3	13.2	2.6
	중 남 미	8.3	4.2	4.2	45.8	12.5	25.0	0.0
	중 동	7.7	15.4	0.0	53.8	7.7	15.4	0.0

주 : 총 548개사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원화환율 불안정’(51.3%), ‘원재료 가격 상승’(38.5%) 순 응답

- 환율 변동성 확대로 ‘원화환율 불안정’(52.1%→51.3%) 응답이 전기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원재료 가격 상승’(46.9%→38.5%) 응답률도 전기에 비해 비중은 감소했으나 두 번째로 높은 비중 차지
-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19.0%→22.4%),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13.1%→17.0%),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7.5%→14.6%) 응답률은 전기에 비해 증가

‘22년 4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응답 기업 수 548, 1순위+2순위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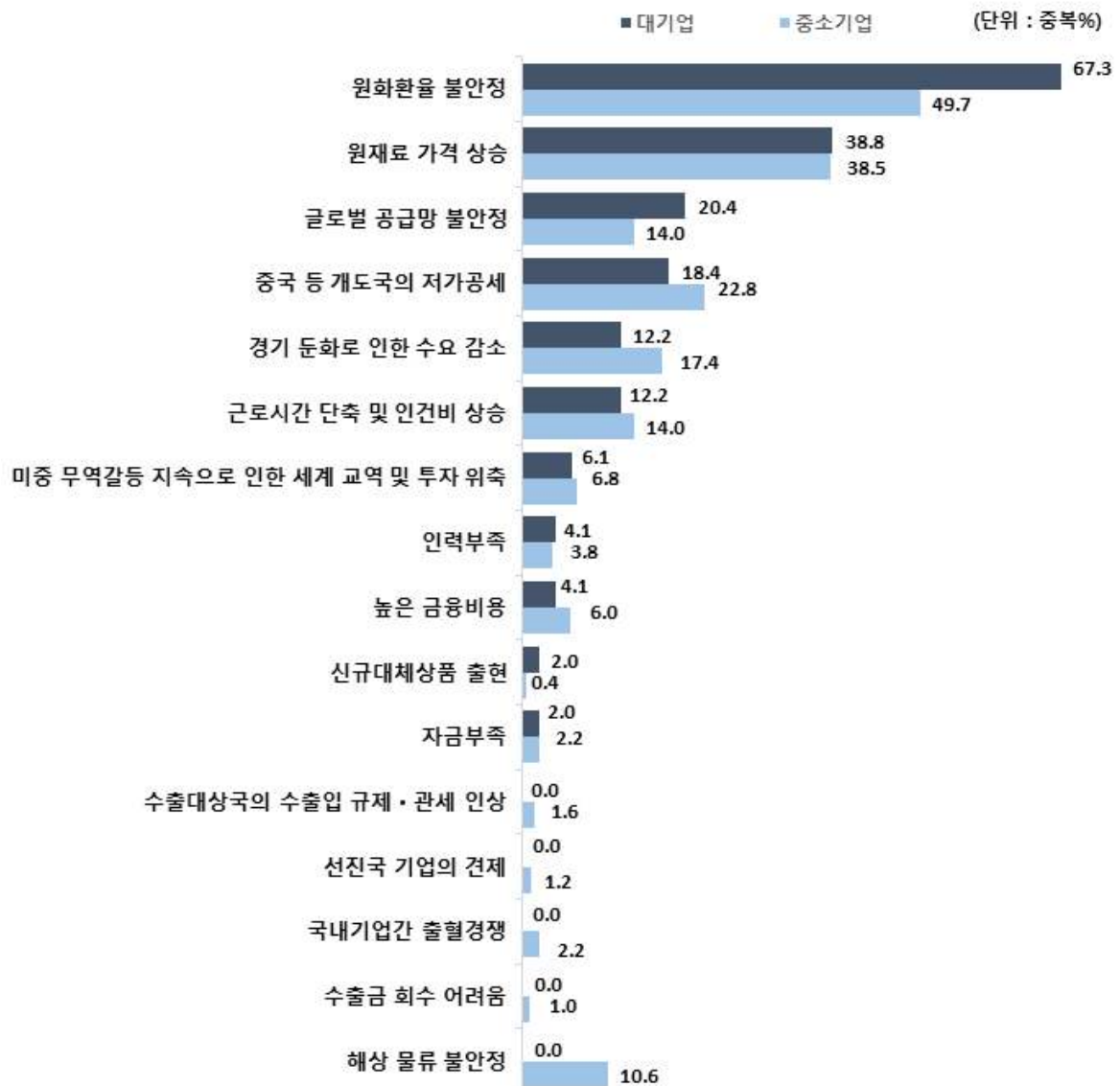
- (산업별) ‘원화환율 불안정’은 문화콘텐츠(70.0%), 플랜트/해건(69.6%), 해운(60.0%), 자동차(58.9%), 석유화학(57.0%) 등에서 높게 응답
- ‘원재료 가격 상승’은 선박(60.9%), 기계류(45.5%), 석유화학(43.0%) 등에서 높게 응답
-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는 철강/비철금속(34.7%), 신재생에너지(33.3%)에서,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는 섬유류(28.6%), 기계류(21.8%), 전기전자(19.2%)에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섬유류(22.9%), 석유화학(20.0%) 등에서 높게 응답



- (규모별) 대기업(46.0%→67.3%)과 중소기업(52.8%→49.7%) 모두 '원화환율 불안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의 응답률은 소폭 줄어든 반면 대기업의 응답률은 증가
-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해상 물류 불안정' 등의 응답률은 중소기업이 더 높았으나, '원화 환율 불안정', '원재료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응답률은 대기업이 더 높게 나타남.

'22년 4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 기업규모별

(응답 기업 수 548, 1순위+2순위 복수응답)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 애로요인

(단위 : %)

구분		원화환율 불안정	원재료 가격 상승	중국 등 개도국 저가공세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감소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근로시간 단축 및 인건비 상승	해상물류 불안정	미중갈등 등으로 세계교역/투자위축
전 체		51.3	38.5	22.4	17.0	14.6	13.9	9.7	6.8
규 모	대 기 업	67.3	38.8	18.4	12.2	20.4	12.2	0.0	6.1
	중 소 기 업	49.7	38.5	22.8	17.4	14.0	14.0	10.6	6.8
산 업	전 기 전 자	46.2	39.7	23.1	19.2	16.7	14.1	6.4	9.0
	기 계 류	46.4	45.5	21.8	21.8	10.9	13.6	11.8	6.4
	철 강 / 비 철	50.7	28.0	34.7	16.0	14.7	16.0	5.3	12.0
	석 유 화 학	57.0	43.0	21.5	15.2	20.3	11.4	8.9	2.5
	자 동 차	58.9	36.8	16.8	13.7	12.6	13.7	14.7	9.5
	섬 유 류	48.6	34.3	25.7	28.6	22.9	5.7	17.1	0.0
	플랜트/해건	69.6	30.4	13.0	8.7	13.0	26.1	0.0	4.3
	신재생에너지	11.1	33.3	33.3	11.1	0.0	11.1	11.1	0.0
	선 박	39.1	60.9	21.7	8.7	8.7	17.4	4.3	4.3
	문화콘텐츠	70.0	20.0	20.0	10.0	30.0	0.0	0.0	10.0
	해 운	60.0	26.7	0.0	6.7	6.7	13.3	20.0	6.7
수출 지역	북 미	57.4	32.4	23.0	20.9	12.8	17.6	10.8	4.7
	중 국	50.5	38.6	16.8	21.8	13.9	8.9	5.0	10.9
	일 본	50.9	43.4	24.5	17.0	13.2	15.1	5.7	9.4
	유 로 존	39.5	40.8	18.4	14.5	22.4	11.8	11.8	7.9
	동 남 아	52.6	42.1	25.4	10.5	14.0	13.2	11.4	3.5
	중 남 미	45.8	37.5	25.0	20.8	12.5	16.7	4.2	8.3
	중 동	53.8	46.2	38.5	7.7	7.7	15.4	23.1	0.0

주 : 총 548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부록> 수출기업 업황 설문조사 및 지수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조사 목적

-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인 수출여건을 기업별, 업종별로 조사하여, 기업경영 계획과 정부의 무역 지원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대상 기간
 - 업황 평가 : 조사 직전 분기
 - 실적 전망 : 조사 해당 분기
- 조사 실시 기간 : 2023년 1월 3일~10일
- 모집단 및 표본
 - 모집단 : 12개 주요산업 중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 표본크기 : 대·중소기업 548개 업체 (대기업 49개, 중소기업 499개)
- 조사 방법 : 전화 및 이메일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 기업들이 해당 분기 조사 항목에 대해 매우 개선(증가·상승), 개선(증가·상승), 비슷, 악화(감소·하락), 매우 악화(감소·하락) 등 5단계 중 자신의 평가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황 개선 기업 수가 악화 기업 수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0보다 낮도록 지수화
- 지수 산출 방식 :

$$\frac{(\text{매우개선} \times 1.0 + \text{약간개선} \times 0.5 + 0 \times \text{동일} - \text{약간악화} \times 0.5 - \text{매우악화} \times 1.0)}{\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100$$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수	출	업	황
평	가	지	수
수	출	채	산
성	평	가	지
수	출	단	가
평	가	지	수
생	산	원	가
평	가	지	수
수	출	물	량
평	가	지	수
자	금	사	정
평	가	지	수

3.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및 구성요소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
- 2010년=100 기준으로 산출
- 2023년 1월부터 OECD 경기선행지수가 OECD 국가 전체에서 G7 및 호주,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화국 등 주요국 중심으로 발표됨에 따라 변수 변화에 맞춰 추정 모형도 소폭 수정됨.

지수 모형 구성 내용

구	분	변	수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가 발표하는 G7 및 호주,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화국 등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외화획득용 일반수입액 ISM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
수출	가격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실효환율
산업	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수요 기계수주액